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Movi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김선영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Seon Young Kim(imife@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2개 4년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실험군 45명, 대조군 63명이다. 실험집단에는 10개 영역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강의가 16주 동안 제공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 26부터 12월 5일까지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1주차와 16주차에 사전-사후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3.07점에서 3.3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태아생명권 3.20점에서 3.55점, 인공임신중절 3.08점에서 3.69점, 인공수정 2.99점에서 3.57점, 태아진단 3.10점에서 3.45점, 신생아권리 3.39점에서 3.55점, 장기이식 3.26점에서 3.53점으로 향상되었다($P < .001$). 반면 안락사, 뇌사, 인간생명공학 영역의 점수는 변화가 없었다($p > .05$). 영화를 이용한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유발, 그리고 교육만족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영화콘텐츠가 강의주제와 부합된다면 간호교육에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생명의료윤리의식 | 생명의료윤리교육 | 영화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using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sig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movies. This study selected the first-year 45 students and 63 students who were attending at two 4-year-course nursing colleges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n, this study provided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lecture on biomedical ethics for 16 weeks using the movie related to the ethical issues covering 10 areas. Data collection was done for 5 days from August 26, 2013 until December 5, 2013, and conducted pre-post questionnaire survey on the 1st week session and 16th session after explaining there search purpose and getting a written agreement from the subjec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Statistics 18, it was found that students' average poin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mproved to 3.31 from 3.07; additionally, in the analysis of the data by sub-area, the point in artificial abortion improved to 3.69 from 3.08; artificial insemination from 2.99 to 3.57; fetal diagnosis from 3.10 to 3.45; a newborn's right to life from 3.39 to 3.55 and organ transplant from 3.26 to 3.53, respectively($P < .001$). On the contrary,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point of the mercy-killing, brain death, and human biotechnology areas, respectively($p > .05$). Conclusively, movie-aided education could be diversely used for nursing education provided movie contents should be in accord with a lecture subject in a way that can arouse students' interest and concern, and improve educational satisfaction.

■ keyword : | Biomedical Ethics Awareness | Biomedical Ethics Education | Movies | Nursing Students |

I. 서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임상현장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인공수정, 생명연장과 같이 삶과 죽음에 깊은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생명경시 풍조가 팽배해지면서 [1],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언제나 윤리적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식과 기술뿐만이 아닌 다양한 가치판단 상황에서 최선의 윤리적 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2] 생명 존중과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3-5]. 특히 의료인은 임상현장에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4]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인에게 있어 윤리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옳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 때문에 최근 대학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술기뿐 아니라 인문학이나 윤리, 철학과 같은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 [6][7]. 또한 예비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교육에서도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8-11].

생명의료윤리는 의학, 생물학, 유전학과 같은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철학, 윤리학, 종교학, 인문학 등의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에 관한 다양한 윤리 문제들에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리는 복합적 학문이다 [3][12]. 생명의료윤리 교육과정에는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방대하다 [12]. 또한 실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있어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10].

따라서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적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3][14].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에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으며 영화를 이용한 교육이 추천되기도 한다 [6][15]. 영화란 다양한 관점과 문맥이 내포되어 있으며 폭넓은 지식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적 효과를 포함한다. 현재 영화를 이용한 교육의 효과나 검정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7][16-18]. 특히, 간호교육에서 영화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유머와 웃음을 제공하고, 영화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정직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6][17].

영화를 이용한 교육은 토론수업에서 훌륭한 자극제 역할을 하며 [18][19], 다양한 주제와 관련 인물들의 관점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어 [6][16-18][20] 생명의료윤리와 같은 복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효과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8].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단순히 간호대학생 [8][10][23]과 임상간호사 [4][5][11][14]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조사하거나 간호직과 비간호직 간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1][3][21][22]. 이들 연구들은 조사대상자만을 차별화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거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최근 들어 생명윤리교육 후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2][24-26].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영화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다 [16][19][20][27]. 간호교육영역에서도 인지, 개념, 기술적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국외의 경우 영화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나 있으나 [6][15][17][18][28] 국내의 경우 간호교육에 영화를 이용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며, 오직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단 한차례 진행되나 있다 [7].

윤순영, 김민숙(2014)은 임상실습 이전의 간호윤리 가치관을 확인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향후 생명의료윤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파악한다.

둘째,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화를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생명의료윤리교과목이 개설된 H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간호대학생이다. 대조군은 실험중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학년 학생 교육과정에 생명의료윤리교육이 개설되지 않은 N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 26부터 12월 5일까지 총 16주 동안 주 3시간씩 영화를 활용하여 생명의료윤리 강의 수강을 신청한 간호학과 1학년 대학생들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강의 1주차와 16주차에 사전, 사후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는 간호학과 1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같은 시기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설문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설문에 참여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실험군 47명, 대조군 70명 총 117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나 불완전하게 응답한 실험군 2부, 대조군 7부를 제외한 108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 실험처치

생명의료윤리 강의는 H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주당 3시간씩 총 16주(3학점)로 구성되었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4주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첫 3주 동안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생명의료윤리의 개관과 생명의료윤리 원칙과 규칙, 그리고 윤리적 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10개 영역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영화를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 내용은 선행연구[12][25][26]와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강의시간 구성은 총 주 3시간으로 영화감상 2시간과 영화감상 이후 토론 1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영화의 시간이 다소 길 경우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감상하였다[표 1].

강의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보다는 수강생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별 그룹토론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의시작 3일전 강의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들과 더불어 영화감상 후 논의해야 할 주제들을 사전에 제공하여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강의시간에는 영화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영화를 감상한 후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룹 활동은 발표 및 보고서 점수(30%)에 각각 반영되었으며, 출석(10%)과 중간고사(30%) 및 기말고사(30%)를 합산하여 나름대로 변별력 있는 성적산출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속해있는 H와 N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교육과정 상 1학년 교양, 2학년 전공기초, 3, 4학년에는 전공필수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N시 위치한 대학의 경우(대조군)생명윤리와 관련된 교과목이 1학년 시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대조군의 경우 학기시작 1주차와 16주차에 사전-사후 설문만을 시행하였으며,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강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5. 연구도구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삶과 죽음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1. 영화를 활용한 생명윤리 교육내용 구성¹⁾

주차	강의주제	주별 시간	활용영화	토론주제
1주	오리엔테이션 및 생명윤리 개관	3	사전조사	
2주	생명윤리의 원칙과 규칙	3		
3주	윤리적 문제해결과정	3		
4주	임신중절	3	If These Walls Could Talk , 1996	낙태논쟁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이라 말 할 수 있는 시점은 어디서부터인가요? 생명존중권은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할까요?
5주	대리모	3	Google Baby , 2009	입양과 인공생식기술에 의존한 출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대리모는 아기 판매업일까요? 국제적인 대리모 산업의 병폐는 무엇인가요?
6주	배아복제	3	My Sister's Keeper, 2009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배아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할까요?
7주	자살	3	Taste of Cherry, 1997	인간은 왜 자살을 할까요? 인간에게는 '죽을 권리' 가 있을까요? 대중문화에서 자살이나 환생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8주	중간고사	3		
9주	안락사	3	The Sea Inside, 2004	안락사와 자살을 왜 다를까요?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주	뇌사	3	21 gram, 2004	인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죽음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뇌사 인정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11주	연명치료중단	3	뜨거운 안녕, 2013	인간에게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할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12주	장기이식	3	Marvin` s Room, 1996	생체로부터 장기제공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정의로운 장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13주	임상연구	3	Drug Trials-The Dark Side, 2006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인체실험의 대상으로 권유되거나 지목되어선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14주	동물실험	3	The Fantastic Planet, 1973	동물시험의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에 대한 차별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15주	생명윤리의 가치	3		
16주	기말고사	3	사후조사	

이영숙(1990)이 개발한 도구를 이규석(2002), 최창성(2002)이 재구성한 도구를 권선주(2003)가 수정 보완한 생명윤리의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생명윤리의식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구성은 총 9영역 49개 문항으로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

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이 중 태아생명권 1문항, 인공임신중절 2문항, 인공수정 2문항, 태아진단 1문항, 신생아권리 1문항, 안락사 3문항, 장기이식 2문항, 뇌사 1문항 등 총 13개의 부정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권선주(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6$ 이었다.

¹⁾주교재: 구영모역음, “생명윤리(3판)”, 동녘, 2010.
참고교재: ① 김장한, 이재담공역, “교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지코사이언스, 2007, ② 마이클센넬,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동녘, 2010, ③ 조비룡, 김대균, 박균열, 정규동 공역, “사례중심의 의료윤리”, 인간사랑, 2008, ④ 구인회지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5, ⑤ 남명진, “영화 속 생명윤리이야기”, 지코사이언스, 2010.

생명의료윤리 강의 만족도는 학습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영화이용 강의의 유익성, 영화 이용이 흥미와 관심유발 정도, 생명의료윤리관련 분야의 관심 형성, 윤리적 판단능력향상, 교수방법 이해도, 강의 이해도, 새로운 지식습득과 관련하여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으로 평가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두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생명의료윤리 교육 전후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값이 .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와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chi^2=0.315, p>.05$), 종교($\chi^2=5.252, p>.05$), 종교 활동 정도($\chi^2=0.586, p>.05$), 형제 자매 수($\chi^2=1.634, p>.05$), 가족 중 의료요원($\chi^2=3.527, p>.05$), 가족 중 사망자($\chi^2=0.718, p>.05$), 현혈경험($\chi^2=2.305, p>.05$), 생명의료 경험($\chi^2=1.127, p>.05$), 본인의 윤리적 가치($\chi^2=4.139, p>.05$)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군의 27(60.0%)명과 대조군 58명(92.1%)이 동아리모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101, p<.001$)[표 2].

2. 생명의료윤리의식의 동질성

[표 3]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N=108)

변수		실험군 (n=45) n(%)	대조군 (n=63) n(%)	P
연령	17~19세	40(88.9)	58(92.1)	$\chi^2 = 0.315,$ $p = .575$
	20~22세	5(11.1)	5(7.9)	
	평균연령	18.76	18.71	$t = .265,$ $p = .792$
종교	기독교	21(46.7)	22(34.9)	$\chi^2 = 5.252,$ $p = .262$
	천주교	7(15.6)	5(7.9)	
	불교	2(4.4)	2(3.2)	
	무교	15(33.3)	33(52.4)	
	기타	0(0.0)	1(1.6)	
종교 활동 정도*	열심히 참여	12(40.0)	14(50.0)	$\chi^2 = 0.586,$ $p = .444$
	열심히 참여하지 않음	18(60.0)	14(50.0)	
형제 자매 수	0명	4(8.9)	2(3.2)	$\chi^2 = 1.634,$ $p = .201$
	1~2명	41(91.1)	61(96.8)	
가족 중 의료요원	유	6(13.3)	18(28.6)	$\chi^2 = 3.527,$ $p = .060$
	무	39(86.7)	45(71.4)	
가족 중 사망자	유	15(33.3)	16(25.8)	$\chi^2 = 0.718,$ $p = .397$
	무	30(66.7)	46(74.2)	
현혈경험	유	20(45.5)	38(60.3)	$\chi^2 = 2.305,$ $p = .129$
	무	24(54.5)	25(39.7)	
동아리 모임	유	27(60.0)	58(92.1)	$\chi^2 = 16.101,$ $p < .001$
	무	18(40.0)	5(7.9)	
생명의료교육 이수 경험	있다	25(55.6)	28(45.2)	$\chi^2 = 1.127,$ $p = .288$
	없다	20(44.4)	34(54.8)	
본인의 윤리적 가치	늘 변함	2(4.4)	0(0.0)	$\chi^2 = 4.139,$ $p = .247$
	가끔 변함	22(48.9)	34(54.8)	
	거의 변하지 않음	20(44.4)	24(38.7)	
	변하지 않음	1(2.2)	4(6.5)	

*종교활동 정도: 종교를 가진 자만 응답함

표 3. 생명의료윤리의식 동질성

(N=108)

항목	실험군 (n=45)	대조군 (n=63)	t	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태아생명권	3.20 ± .53	3.37 ± .50	-1.699	.096
인공임신중절	3.08 ± .35	3.02 ± .30	.918	.372
인공수정	2.99 ± .40	2.95 ± .50	.485	.616
태아진단	3.10 ± .39	3.17 ± .36	-1.062	.298
신생아관리	3.39 ± .45	3.32 ± .45	.719	.475
안락사	2.95 ± .38	2.79 ± .43	1.960	.048
장기이식	3.26 ± .37	3.31 ± .43	-.673	.492
뇌사	2.79 ± .36	2.90 ± .34	-1.709	.094
인간생명공학	2.93 ± .35	2.93 ± .30	.025	.980

태아생명권 영역에서 실험군 3.20점, 대조군 3.37점, 인공임신중절영역에서 실험군 3.08점, 대조군 3.02점, 인

공수정 영역에서 실험군 2.99점, 대조군 2.95점, 태아진단영역에서 실험군 3.10점, 대조군 3.17점, 신생아생명권 영역에서 실험군 3.39점, 대조군 3.32점, 안락사영역에서 실험군 2.95점, 대조군 2.79점, 장기이식영역에서 실험군 3.26점, 대조군 3.31점, 뇌사영역에서 실험군 2.79점, 대조군 2.90점, 인간생명공학영역에서 실험군 2.93점, 대조군 2.93점으로 두 집단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연구대상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생명의료윤리의 하위 영역은 실험군의 경우 신생아권리, 장기이식, 태아생명권 순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태아생명권, 신생아 권리, 장기이식 순이었다[표 3].

3.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효과 분석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이후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실험군의 경우 교육 전 3.07점에서 교육 후 3.31점으로 상승하였으며($p<.001$), 하위영역별 점수변화는 태아생명권 영역에서 교육 전 3.20점에서 교육 후 3.55점으로 0.34점, 인공임신중절 영역에서는 교육 전 3.08점에서 교육 후 3.69점으로 0.44점, 인공수정 영역에서는

교육 전 2.99점에서 교육 후 3.57점으로 0.45점, 태아진단 영역에서 교육 전 3.10점에서 교육 후 3.45점으로 0.39점, 신생아권리 영역에서 교육 전 3.39점에서 교육 후 3.55점으로 0.50점, 장기이식 영역에서 교육 전 3.26점에서 교육 후 3.53점으로 0.34점 윤리의식이 향상되었다. 반면 안락사영역에서는 교육 전 2.95점, 교육 후 2.79점으로 0.40점, 뇌사영역에서는 교육 전 2.79점에서 교육 후 2.78점으로 0.31점, 인간생명공학영역에서는 교육 전 2.93점에서 교육 후 2.85점으로 0.28점 하락하여 윤리의식이 낮아졌다.

대조군의 경우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사전 3.08점에서 사후 3.05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하위영역별 점수의 변화는 뇌사영역에서 사전 2.90점에서 사후 2.95점으로 0.05점 향상된 반면 나머지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태아진단, 신생아진단, 안락사, 장기이식, 인간생명공학영역에서는 다소 윤리의식이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표 4].

4. 영화 강의 만족도

영화를 이용한 강의에 전체 80.0%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내용에 대해 91.1%는 ‘만족’한다고 응

표 4.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의 효과

(N=108)

항목	그룹	사전	사후	paired-t	P	평균차이 (사후-사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명의료윤리 의식 총점	실험(n=45)	3.07±.21	3.31±.23	-6.996	<.001	.23	6.999	<.001
	대조(n=63)	3.08±.19	3.05±.21	2.206	.032	-.06		
태아생명권	실험(n=45)	3.20±0.53	3.55±0.41	-4.330	<.001	0.34	3.725	<.001
	대조(n=63)	3.37±0.50	3.32±0.39	.707	.483	-0.05		
인공임신중절	실험(n=45)	3.08±0.35	3.69±0.44	-9.264	<.001	0.61	9.456	<.001
	대조(n=63)	3.02±0.30	2.90±0.29	2.829	.006	-0.13		
인공수정	실험(n=45)	2.99±0.40	3.57±0.45	-8.748	<.001	0.58	6.196	<.001
	대조(n=63)	2.95±0.50	2.95±0.48	.512	.611	-0.04		
태아진단	실험(n=45)	3.10±0.39	3.45±0.39	-4.615	<.001	0.36	4.970	<.001
	대조(n=63)	3.17±0.36	3.09±0.37	1.696	.095	-0.09		
신생아권리	실험(n=45)	3.39±0.45	3.55±0.50	-2.012	.05	0.16	2.827	<.001
	대조(n=63)	3.32±0.45	3.21±0.48	1.922	.059	-0.11		
안락사	실험(n=45)	2.95±0.38	2.79±0.40	3.162	<.001	-0.16	-1.478	.130
	대조(n=63)	2.79±0.43	2.74±0.39	.938	.352	-0.05		
장기이식	실험(n=45)	3.26±0.37	3.53±0.34	-4.215	<.001	0.27	3.689	<.001
	대조(n=63)	3.31±0.43	3.20±0.44	1.420	.161	-0.1		
뇌사	실험(n=45)	2.79±0.36	2.78±0.31	.125	.901	-0.01	-.719	.489
	대조(n=63)	2.90±0.34	2.95±0.33	-1.054	.296	0.05		
인간생명공학	실험(n=45)	2.93±0.35	2.85±0.28	1.589	.119	0.08	-.587	.561
	대조(n=63)	2.93±0.30	2.88±0.29	1.048	.299	0.04		

답하였으나 불만족 이유로는 ‘영화가 재미없는 경우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오거나 영화가 길어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영화를 통해 어려운 윤리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화를 이용한 강의의 유익성은 전체 37.8%가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영화 이용이 강의 흥미와 관심유발에 대해 ‘만족’ 51.1, ‘매우 만족’ 21.4%였으며,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도 형성은 ‘만족’ 62.2%, ‘매우 만족’ 20.0%였다.

또한 윤리적 판단능력형성에 대해 ‘만족’ 37.8%, ‘매우 만족’ 4.4%로 조사되었으며 교수방법 이해도에 대해 ‘만족’ 51.1%, ‘매우 만족’ 26.7%, 별도의 도움 없이 강의 내용 이해에 대해 ‘만족’ 33.3%, ‘매우 만족’ 8.9%였으며, 새로운 지식습득에 4.22%가 ‘만족’을 53.3%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 교육 만족도

(N=45)

	불만족 n(%)	보통 n(%)	만족 n(%)	매우 만족 n(%)
학습방법 만족도	0(0)	9(20.0)	29(64.4)	7(15.6)
교육내용 만족도	0(0)	4(8.9)	27(60.0)	14(31.1)
영화가용 강의 유 익성	0(0)	0(0)	28(62.2)	17(37.8)
영화가용이 강의 흥미와 관심유발	2(4.4)	9(20.1)	23(51.1)	11(24.4)
생명의료윤리관련 분야 관심도 형성	1(2.2)	7(15.6)	28(62.2)	9(20.0)
윤리적 판단능력 향상	7(15.6)	19(42.2)	17(37.8)	2(4.4)
교수방법 이해도	2(4.4)	8(17.8)	23(51.1)	12(26.7)
별도 도움 없이 강 의내용 이해	6(13.3)	20(44.4)	15(33.3)	4(8.9)
새로운 지식습득	0(0)	2(4.4)	19(42.2)	24(53.3)

IV. 고찰

본 연구는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간호학과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비 수강학생 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이 향상되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 권리, 장기이식영역에서 윤리의식이 높아졌으나 안락사, 뇌사, 인간생명공학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영화콘텐츠를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실제 토론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생명의료윤리교육 후 윤리의식 변화를 조사한 연구와 비교시 김인순[24]의 연구에서는 생명윤리과목만을 수강한 학생에게서 태아진단, 뇌사영역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유명숙, 손기철[26]의 연구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영역의 윤리의식만이 향상되었다. 반면 영화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더불어 태아생명권을 포함한 6가지 하위영역에서 윤리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영화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하위 영역에서 윤리의식이 높은 순서를 보면 생명의료윤리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신생아권리, 태아생명권, 장기이식, 태아진단, 인간생명공학, 안락사, 뇌사순위가었고, 비수강학생은 태아생명권, 신생아 권리, 장기이식, 태아진단, 인공수정, 뇌사, 인공임신중절, 인간생명공학, 안락사순위이었다. 생명윤리의식이 높은 순위는 생명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비수강 학생 사이에서 약간 다른 순위를 보였으나 안락사, 인간생명공학영역의 윤리의식이 두 집단 모두 낮았다. 김인순(2013)의 연구[24]에서는 안락사, 인공임신중절, 인간생명공학 순으로, 조미경(2013)의 연구[3]에서는 뇌사,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순으로 정하윤, 정귀임(2012)의 연구[23]에서는 인공임신중절, 뇌사, 안락사 순으로 윤리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뇌사에 대해 낮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나타낸 반면,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높은 윤리의식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 이러한 문제는 삶과

죽음에 관해 우리사회와 의료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락사의 경우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그 행위 주체의 참여정도에 따라 안락사의 종류가 구분되면서[30] 안락사라는 총칭으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죽음의 판정기준이 심폐사가 아닌 뇌 기능의 정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죽음의 기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관련영화인 “The Sea Inside”는 전신마비를 가진 대상자의 안락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21gram”의 경우 뇌사보다는 장기이식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어 강의주제와 영화의 주제의 일치정도가 다소 부족한 결과로 관련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영역 점수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생명공학의 경우는 강의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강의만족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방법, 교육내용, 영화이용 유익성 및 강의 흥미와 관심유발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한 것은 영화를 이용한 강의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오진아[6]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일부 하위영역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판단능력향상에서는 15.6%는 불만족을, 44.2%는 보통이라 응답하여 그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화를 통해 어려운 윤리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다’라는 의견은 영화라는 콘텐츠가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이나 ‘긍정적인 태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윤리적 판단과 수행에 해당하는 ‘윤리적 판단 능력’ 함양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별도 도움 없이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 13.3%는 불만족, 44.4%는 보통이라 응답하였다. 이는 사전 학습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행 학습하도록 한 점, 강의주제와 영화콘텐츠의 일치정도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윤리영역별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포괄적 개념의 윤리적 판단능력에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또는 ‘표준환자를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진반적으로 영화를 활용한 학습방법과 교육내용에 만족감을 보였으나 ‘영화가 재미없는 경우 집중이 안되고 잠이 오거나 영화가 길어서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어 영화 선택에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DiBartolo와 Seldomridge(2009)[31]는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목표가 정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화 선정은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현실감 있는 최신 영화, 간호과정을 보다 쉽게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간호사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우선 고려해야한다[6].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화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영화제작자들이 다양한 윤리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함께 필요하다.

또한 영화를 간호교육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습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18]. 강의주제와 부합하는 영화선택에서부터 단순히 영화만을 보는 강의가 아닌 교과서, 강의, 소집단 토론, 실제경험 등의 사전예습을 통해 학생들이 그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6]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실습경험과 기간[10], 임상경력[2]이 생명의료윤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임상실습과 관련된 경험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생명의료윤리 교육과 임상실습이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 1학년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생명의료윤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생명의료윤리 교육은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신중절, 대리모, 배아복제, 자살, 안락사, 뇌사, 연명치료중단, 장기이식, 임상연구, 동물실험 등 총 10개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감상 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 이후 생명의료윤리의식이 3.07점에서 3.3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권리, 장기이식 영역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 < .001$)

본 연구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간호사에게 있어 생명의료윤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아리 활동이 실험군과 대조군 간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통제하고 교육을 효과만을 보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영화 감상 후 관련주제와 관련된 토론이 진행되어 영화콘텐츠만의 효과를 변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화를 이용한 간호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유발, 그리고 교육만족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따라서 강의주제와 부합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를 활용한다면 간호교육의 효과성과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명의료윤리교육과 임상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와 함께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윤리적 상황에 대한 질적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안혜영, 조병선, 최숙희, 최원, 고유미, "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생명 윤리 의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98-107, 2008.
- [2] 김예진, 이명남, "병원간호사의 간호윤리 가치관 및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p.312-323, 2011.
- [3] 하주영, 김동희, 황선경,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의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2호, pp.216-224, 2009.
- [4] 조미경, "간호과와 비 간호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비교",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pp.311-320, 2013.
- [5] 김미정, 김명희, "임상 간호사의 도덕성 발달과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5권, 제2호, pp.337-353, 1999.
- [6] 오진아, 임미혜, "간호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 국외 연구논문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95-404, 2011.
- [7] 박완범, 장은영, 서미성, "영화를 활용한 수업 경험: HIV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의학교육학회지, 제23권, 제1호, pp.27-32, 2011.
- [8]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pp.262-272, 2009.
- [9] 이혜경, 신재숙,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소진 및 대처와의 관계,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pp.339-354, 2012.
- [10] 문미영, 정애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및 생명의료 윤리의식과의 관련성 조사 연구",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pp.49-62, 2012.
- [11] 김애경, "간호사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태도 조사",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1호, pp.76-85, 2002.
- [12] 양재섭, 구미정,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 교육: 대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명

- 윤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16, 2009.
- [13] 이미애, 김익중, 홍성훈, "DIT를 사용한 간호학생의 도덕판단력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8권, 제2호, pp.105-115, 2005.
- [14] 김미주,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조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4권, 제1호, pp.15-30, 2001.
- [15] C. H. Kerber, D. Clemens, and W. Medina, "Seeing is believing: learning about mental illness as portrayed in movie clip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3, No.10, pp.479, 2004.
- [16] 이명근, "영화의 교육적 활용", 미래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pp.1-26, 2005.
- [17] L. Northington, R. Wilkerson, W. Fisher, and L. Schenk, "Enhancing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Using Aesthetic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21, No.1, pp.66-71, 2005.
- [18] 오진아, "간호교육에서 영화의 활용에 관한 고찰: Cinemeducation",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94-201, 2010.
- [19] 백경숙, "변이어 교육을 위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의 효용성 고찰", 영상영어교육, 제10권, pp.119-145, 2009.
- [20] 김지훈, "영화활용수업의 사례와 방법연구", 교육과학연구, 제12권, pp.115-132, 2007.
- [21] 권선주,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2] 이용산, *임상 의사와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3] 정하윤, 정귀임, "간호대학 신입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6권, 제4호, pp.37-48, 2012.
- [24] 김인순, "생명의료교육이 간호보건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3, 2013.
- [25] 유명숙, 박현숙, "간호윤리교육이 간호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51-60, 2010.
- [26] 유명숙, 손기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 판단력에 관한 간호윤리교육의 효과",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61-76, 2011.
- [27] J. A. Higgins and S. Dermer, "The use of cinema in marriage and family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Vol.40, No.3, pp.182-192, 2001.
- [28] 오진아, 신혜원, Gagné JCD, "간호학생의 질 향상과 안전교육(QSEN) 역량개발을 위한 영화간호교육의 적용",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474-485, 2012.
- [29] 윤순영, 김민숙, "입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간호윤리 가치관 관련성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pp.363-372, 2014.
- [30] 구영모,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의료법학, 제6권, 제1호, pp.63-86, 2005.
- [31] M. DiBartolo and L. Seldomridge, "Cinemeducation: teaching end-of-life issues using feature film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35, No.8, pp.30-36, 2009.

저 자 소 개

김 선 영(Seon-Young Kim)

정희원



▪ 2011년 3월 ~ 현재 :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생명의료, 노인간호, 임종간호, 문화간호